日, 호류지 금당벽화 소실 전으로 복원

아스카 시대 명작으로 손꼽혀
1949년 화재 소실된 것 복제
안료 변색 막고 내구성 높여
화재 전후 비교 가능케 전시

박영빈 객원기자



실제 크기의 도판으로 복원된 호류지 금당벽화.
사진출처=나라신문

70년여 전의 화재로 소실된 일본의 호류지(法隆寺) 금당벽화가 소실 직전의 색채와 상황 등을 복원한 복제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3월 19일 일본의 '나라신문'과 'NHK 간사이' 등은 다시 돌아온 호류지 벽화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3월 18일 일본 나라현 카시하라시에 소재한 현립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박물관은 새롭게 복원된 호류지 금당벽화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호류지 금당벽화 제1호 벽에 그려진 석가정토도. 중앙에는 선명한 붉은 가사를 수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보살과 나한이 협시로 서있는 구도로 아스카 시대의 명작으로 꼽히던 벽화다.

실물과 동일한 크기인 높이 약 3m, 너비 2m 50cm 가량으로 제작된 이 벽화는 지난 1949년 화재로 손실된 원복의 복원 복제품이다. 그림은 도판에 그려져 소성한 것으로 안료의 변색을 막고 그림의 내구성을 높였다. 복원을 맡은 회사는 일본내 고분벽화의 복원과 복제로 유명한 오사카의 오츠카 오미 도자회사로 사측은 이번 원형 복원 복제를 위해 회사의 모든 기술력은 물론 일본화와 불화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손을 거쳤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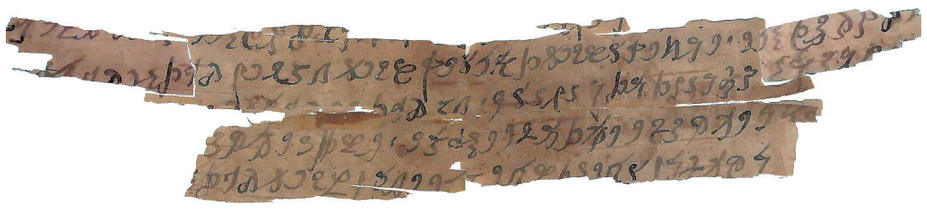
나라현 측은 "재작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외 박물관과의 국제교류 사업의 촉진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화재 1939년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을 비롯해 소실된 벽화에 잔존한 안료의 분석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90년전의 색채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작년 3월 완성된 이 벽화는 같은 해 가을 중국 칭화대에서 열린 중일교류 특별전에 처음 선보였고, 18일부터는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 박물관에 상시공개된다. 복원된 벽화의 맡은 편엔 화재로 손상된 현 상태의 벽화를 그대로 복제한 도판이 전시하여 화재의 전후를 한 눈에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카시하라 고고학 연구소의 아오야기 마사노리 소장은 "이정도로 훌륭하게 색채를 복원할 수 있었기에 화재의 전후로 벽화 전체의 인상이 크게 바뀌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벽화를 전체를 복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켄체 재단, 파키스탄에 간다리 불교 문헌 기증

기원전 1세기 경 제작 추정
"문헌 디지털화 · 출판 추진"



국제불교연구학회지 41(2018)에 게재된 반주삼매경 일부. 사진출처=켄체 재단

부탄의 켄체 재단이 파키스탄에 고대 간다리(Gandhari) 불교 문헌을 기증해 화제다. 지난 3월 15일 부탄의 불교지도자이자 영화제작가로도 유명한 켄체 노르부 린포체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켄체 재단'이 2,000년 된 불교 문헌과 카로슈티 문자로 쓰인 고대 필사본을 파키스탄 이슬라바마드 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된 불교 문헌은 50~60개의 자작나무 껍질에 산스크리트어의 파생어인 간다리 문자로 필사한 두루마리 형태의 불교경전이며 발견된 고대 불교 문헌 중 가장 큰 크기로 알려져 있다. 고문서 분석과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 결과에 따르면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켄체 재단 관계자는 "파키스탄에 기증한 고대 문헌들은 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에 있던 간다라의 풍부한 불교문학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이라면서 "팔리어로 쓴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숫타니파타의 8장을 간다리어로 필사한 문헌이 존재하며 당시 스님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율장도 있다. 이와 유사한 고대 필사본들을 불교 사해문서(死海文書)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슬라마바드 박물관에 기증하는 간다리 문헌 컬렉션은 사실 1990년대 초부터 대중에게 알려진 여러 소장품 중 하나"라며 "이번 기증은 파키스탄 공공기관에 영구 거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기증 의의를 전했다. 켄체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간다리 문헌은 모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것이며 일부 소장품은 영국 도서관등 여러 국가 공공 기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번 기증은 켄체 재단의 지원을 받은 파키스탄 고고학 박물관부(DOAM)와 시드니 대학 간의 협약 및 이슬라마바드의 호주 고등 위원회와 캔버라의 파키스탄 고등 위원회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20일 이슬라마바드 박물관에서 파키스탄 국가유산문화부 장관인 파레나 마즈하르가 참석한 가운데 압둘 아지엠 박사가 공식화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골동품 거래의 일환으로 반출되어 훼손되는 고대 필사본의 유통 방식을 뒤집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문헌의 보존과 연구, 파키스탄의 풍부한 불교 유산의 문서화를 촉진하기 위해 파키스탄 학자들과 협력하고 파키스탄 학생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문헌의 보존, 분석, 디지털화, 출판은 국제학자인 간다리 원고 프로젝트(GMP)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시드니 대학 측은 "이번 불교 문헌의 기증은 남아시아의 불교 사상 발전, 중국으로의 불교 전승, 고대 간다라의 역사, 중앙아시아와 중국에서의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등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켄체 재단은 2001년 켄체 노르부 린포체가 포교 및 불교 수행의 모든 전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문헌 · 경전 보존 및 번역 프로젝트, 아시아에 산재한 승가대학의 지원, 장학금 지원, 불교 연구 개발, 불교 교사 양성 및 개발,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불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泰, 메콩강 수위 내려가며 모습 드러낸 탑

메콩강 수위 낮아지며 나타나
부처님 발가락 뼈 봉안된 탑



강 수위가 낮아져 모습을 드러낸 진신지골사리탑에 불자들이 금색 천을 두르고 있다.
사진출처=더 네이션 타일랜드

라오스와 태국 북동부 사이의 메콩강에서 7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탑이 나타났다.

지난 3월 16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는 태국 메콩강 수위가 내려가며 모습을 드러낸 고대 탑 소식을 전했다. 태국 이산 지방의 최북단 농카이주에 성스러운 건축물을 보기위해 불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프라 댓 카이 또는 프라 댓 클랑남(물에 잠긴 탑)으로 알려진 진신사리탑 프라 댓 라 농은 700여 년 전 메콩강 둑에 지어졌으나 1847년 메콩강으로 추락해 175년 간 수면 아래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잠긴 탑은 강 수위가 낮아지면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가뭄으로 메콩강 수위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잠겨있던 탑이 모습을 드러내 수많은 불자들이 탑을 보기위해 농카이 강둑에 방문했다. 사원의 역사와 유물 정보를 기록하는 전통 불교 연대기 우랑카닷(Urangkhathat)에 따르면 프라 댓 라 농 탑에는 부처님의 발가락뼈 9구를 봉안한 진신지골사리(眞身指骨舍利) 탑이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사각형 탑의 너비는 17.2m, 높이는 28.5m인 것으로 밝혀졌다. 탑은 추락당시 세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물의 흐름에 의해 계속 침식되고 있다. 탑의 구조 비교 분석 결과 15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지사리(佛指舍利)탑 친견을 위해 순례를 온 불자들은 보트 위에서 탑을 만지기도, 또 금색 천을 씌우기도 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낮은 수위를 유지하는 메콩강의 일부 구간은 수심이 1미터도 채 되지 않아 관계자들은 보트 운행 및 이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현지 보트 항해사 '라핀 부센'은 "최근 며칠간 진신지골사리탑을 보기 위해 순례를 온 불자들이 많아졌으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면서 "부처님 가피로 도움을 받은 우리가 순례자들의 친견을 돕겠다. 더욱 많은 보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3년 전 큰 가뭄으로 태국 중부에 있는 불교 사원의 잔해 드러나기도 했다. 롭부리주의 왓농 부아 야이라는 절은 댐 건설로 인해 20년간 수면 아래 잠들어 있었다. 최악의 가뭄으로 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수몰 당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석불상과 사찰이 모습이 드러나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만 불교연합회, 교황과 만남 가져

종교 간의 대화와 서로 다른 문화 간 만남의 장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초상화를 선물하는 대만 불교 대표단. 사진출처=중앙통신사

'인간불교(人間佛教)'를 모토로 하는 대만 불광산사의 '중화인간불교연합회'가 지난 16일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대만의 '중앙통신사'와 바티칸의 '바티칸 뉴스' 등의 외신들은 대만불교를 대표하여 수백명의 불자들이 종교간의 대화와 서로의 문화 교류를 위한 순례로써 바티칸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화인간불교연합회와의 접견자리에서 "대만 불자들의 바티칸 방문은 불교와 기독교 각각의 신자가 스스로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자라난 자란 우애와 협력의 정신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표단을 환영했다. 또 교황은 '인간불교'의 추진자로, 얼마 전 입적한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를 애도하며 성운대사가 이어온 여러 종교대화에 공헌을 추모하면서, "동서양의 전통종교가 가지는 지혜와 인간성을 가지고 영성의 교육에 새로운 자극을 가져와 세계에 보편적인 형제애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대표단을 이끈 불광산사의 신바오 스님은 우호의 증표로 특별히 대만에서 제작된 두 점의 그림을 교황에게 선물했다. 이중 하나는 불광대학 부설 유치원의 원생들이 그린 교황의 초상화로, 신바오 스님은 "이 두 그림은 교황이 가진 세계에 대한 큰 사랑과 대만을 향한 축복을 상징한다. 대만과 바티칸 간의 종교 교류를 통해 동양과 서양종교 간의 관용과 화합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황은 대표단의 선물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만남의 문화'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를 열어 그 안에 우정과 형제애를 찾아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만남의 문화는 상호간의 계단을 쌓아올려 타인이 종교적 가치와 원칙에 대해 창문을 열 수 있다. 인류와 지구가 너무나 빠르게 계속 변화하는 오늘날이야 말로 만남의 오아시스가 더 필요하다"며 종교간의 대화와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교황은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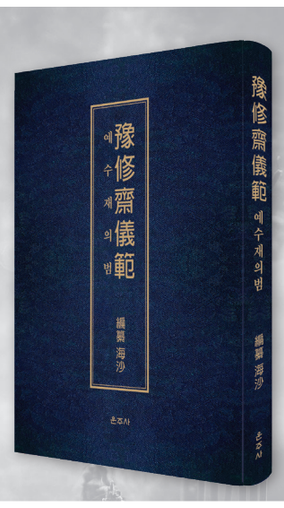
쉽고 재미있게! 불교명상 A에서 Z까지!



불교명상이란 무엇인가? 불교명상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 불교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명상의 역사와 원리, 실천 방법과 효과까지 폭넓게 다룬 입문서 겸 실천 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무선/228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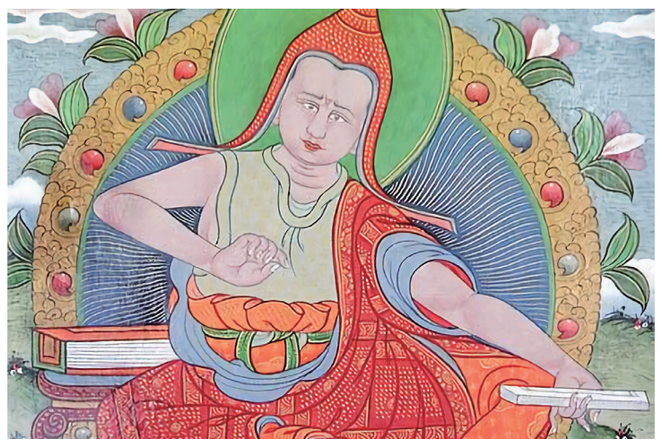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入中論 講解

입중론 강해

『중론』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보살의 『입중론』 해설서!



『입중론』은 티베트 불학원의 학승들이 필수적으로 게송을 암기하며 달라이라마 존자도 매일 독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논서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체가 번역, 해설되었다.

월칭 조송/법존 역강/지엄 한역/신국판/양장/408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